

제 210 호

대림 제1주일

(C해 시작)

1976. 11. 28.

숲 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 감론 □



“늘 깨어 기도 하시오”

(루가 21, 36)

이 대 권 신부

“홍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로 세월을 보내거나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시오.” (루가 21, 34) 그리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 하시오.” (루가 21, 36)

음과 양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느덧 대림절을 또다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낙화 유수다’ ‘낙화 광음이다’ 말 하듯이 고된 인생 향로! ... 잘도 지나갑니다. 춘하추동 사시절도 막바지. 안간힘을 다하여 이제는 열풍설한이 닥쳐 왔구려! 불란서 바스칼이 말하듯 ‘생각하는 갈래’란 우리 인생의 백서(百書) - 어두움을 헤치고 광명의 희망속에 사람을 찾아오시는 구세주 주님을 정성도 아 우리네 마음에 따뜻하게 모셔야 하겠습니까.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격동하는 사회와 극변하는 세계정세가 오늘의 삶에 시달린 인간의 가슴에 쓰라릴 공포증을 느끼게 하여 줍니다. 물질양면에 고된 호흡을 하는 오늘의 현대인! 주님의 모상을 닮아야 할 인간의 참된 모습이 점점 불투명하여져 가지나 않나? 이제 1년을 또 헛되게 보낸감이 있는가? 아니, 견잡을 수 없이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안정시켜 “늘 깨어 기도 하시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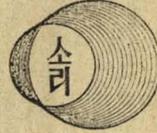
이제 우리는 잠을 깨고 현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을 준비를 합니다. 생각하는 인간이, 행동하는 인간이 되어 봅시다. 구름각인 어둠속에서 잠을 깨어 주님의 구세광명으로 발길을 재촉합시다. 추상적인 이론에만 치우치지 말고 현실도피에 흡입하여 개인 주의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봉사하는 자세로 전진하는 신자가 되어 봅시다. 구태의연한 자기 중심, 자기 변명, 의타주의..... 이 모든 가시범플에서 용감하게 새로운 나의 얼굴, 주님의 모상을 되찾기에 분부 노력합시다.

저는 40여년전 중학교 1년에 읽은 ‘인생 독본’이란 책을 읽고 년말이나 대림절엔 인생무상함을 회고합니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 저서인듯 생각됩니다.

용감한 한 사나이가 의기양양하게 청춘을 하늘 높이 밟고 먼 사막길을 떠나가자 뭔가 뒤에서 추격하는 예감이 있어 돌아보니 성년 호랑이가 오고 있었어요. 정신없이 앞에 보이는 연못으로 툭툭 뛰어 들었습니다. 어느덧 호랑이는 못 들레에 다가와 산천이 두너저라하고 으르렁 매는 메 은 물이 얼은 듯하였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어 보니 못 가운데 나무가 있어 나무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허기가 들고 사경에 이르렀던바 유심히 나무앞을 쳐다보니 벌꿀이 많이 깔려 있어 그 나무잎 꿀을 따 먹다보니 달콤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그런 순간에 공포증도 없어지고 ‘이제 살았구나!’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딱딱 푹푹 무슨 소리가 자꾸만 들려서 내려다보니 흰 쥐와 검은 쥐가 나무 뿌리를 갉아 먹고 그 사람 운명은 또다시 시간 문제였습니다. 익크! 이제는 살길이 없었습니다. ‘주여! 나 좀 살려 주십시오.’ 정말로 그는 깨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흰쥐와 검은 쥐는 주야 세월를 말하며, 달콤한 꿀은 현세적 향락..... 교형 자매 여러분!
금년 대림절을 맞이하여 늘 깨어 기도합니다.

〈전주 중앙 천주교회 주임신부〉



꿈과 촛불

인간이 살아가는 여정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다. 가끔 꿈가꿈 즐거울 때도 있지만 어려운 때도 많고 고달플 때도 많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을 내일이 있기에 잊고 넘어간다.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일이 있기에 더욱 그러할 수 있다.

까마라 대주교는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남을 수 있지만 3백만의 꿈은 현실안에 있다」고 말했다. 이 말씀에 대한 김수환 추기경과 강원룡 목사의 대답을 소개한다. <월간 對話 11월호, 권두 대담 「이 민족에게 希望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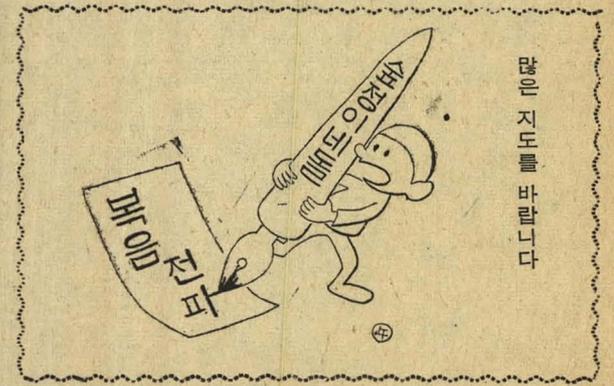
우리의 영원한 내일을 위해 이 대림절에 꿈을 갖고 촛불을 켜자.

김수환-「한 사회에서 누군가 먼저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전파되고 점차 확대되어 모든 사람의 꿈이 될 때는 분명히 현실화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꿈이란 말은 인간다운 인간사회, 정의롭고 진리에 바탕을 두고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회를 건설해보자는 꿈이죠. 우리도 우리의 여러가지 상황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꿈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아야겠고 교회가 그 촛불을 밝혀야 되겠죠. ... 어둠을 타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 촛불을 하나 밝히게 되면 나도 촛불을 밝혀야겠다. 너도 촛불을 밝혀야겠다. 이렇게 전파되어 수백만 크리스찬이 촛불을 밝히고 같은 꿈을 갖게 되면 그 꿈은 분명히 현실화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원룡-“꿈을 가진 사람들이 소리를 합해 가지고 나아가면 그래도 이 아주 광 광 얼어붙은 것이 녹아질 수 있고, 창문을 조금 뚫어놓으면 가득찬 개스가 나가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숲 정이 산책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 숲정이 창간 4 주년 □



편달(鞭撻)과 협조를...

1972년 12월 3일 숲정이 창간호가 교형 자매들에게 선을 보였다. 많은 분들이 잘되기를 빌어주면서도 잘 될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가졌었다. 이제 4주년을 맞는 오늘 숲정의 발자취를 잠시 더듬어 본다.

숲정이가 출범하던 날, 창간 발행인 김 영일 신부님은 숲정이는 우리 신자들 개개인의 자기성장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소망했다. 당시 교구장 서리 김 재덕 주교님은 「복음 선포의 길잡이」가 되어 줄것을 축사로 당부했고, 당시 교구 평신도 대표 송영선 회장은 「평신도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고 축하를 했다.

창간 첫돌에 조 성호 주교는 숲정의 사명은 「가르치는 일, 평신도의 광장, 일치의 햇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돌날 김 재덕 주교님은 「명실(名實)이 같은 교구 주부가 되기를」 당부하였고, 발행인 김 종택 부주교님은 「교우들의 의식 계발이 숲정의 사명」이라고 강조하였고, 본지 인쇄인 범석규 신부님은 「은 집안 식구들의 협력이 필요」 하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세돌날 요십이는 숲정이 산책에서 「아직 어려서 미숙한 점이 많ی」 있다고 응석을 부리는데도 교구 교리교사 연합회장이었던 이 병희씨는 「창간호로 시작하여 차곡 차곡 매어놓은 숲정이를 볼 때마다 우리 교구의 발전사를 보는 것만 같아 정말 흐뭇한 마음 그지없다」고 축하해주었다.

그래서 숲정이는 오늘 더욱 쫁쫁넌다.

오직 편달과 협조만을 빈다.

공소에서든 제날짜에 숲정이를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본당의 협조를 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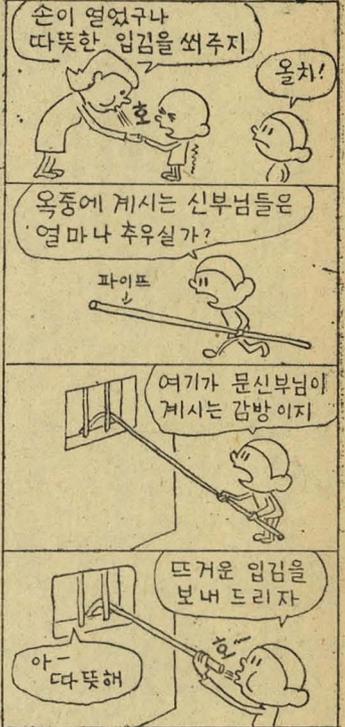
본당에서의 숲정이 대금 미수액만도 70여 만원이다. 본당의 협조를 또 빈다.

우승로 체납때문에 편집실 직원들이 봉급으로 때우기도 한다. 본당의 협조를 또 빈다. <甲>



□ 숲정이 산책은 끝났는데 요십이를 어떻게... 명상에 잠긴 김병오 편집위원.

요십이 (174) 김병오



*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

임금님 찻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 0 1 3
김 원 준 (야고버)

□ 개원안내 □

★ 언제나 찾아 주세요 ★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 소아과> 앞

원장 김 현 (아오스당)

전화 ② 1665

건강 상담, 특수 처방

동양약국

군산시 문화동 880-5

<카디날 장갑 공장 앞>

약사 김예자 <마리아 막달레나>

□ 회소식 !!!

나왔다 가스 완

(연탄가스 제독제)

★ 16년간 연구하여 국립 연구기관
의 유해가스 제독의 우수한
성적서를 획득하였음.

★ 1개월 경비 500원

□ 책임지고 따뜻하게

★ 한국(流) 온수 보일러

★ 금화식 보일러

가스완 전주 특약점

한국(流) 온수 보일러 전통 지점

주 원배 (실배들)

□ 전주 매곡교 사거리

(전화 ② 2 1 4 3)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성심당 한약방

이 상 범 (필노리아노)

육교 밑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③ 4 5 4 4

각종 생과자 식빵 및 케익

미미제과소

전화 ③ 6 5 8 9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 은행 옆>

김민주 <가타리나>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공지 사항 ※

1. 가톨릭 농민회 연수회 (12월 1일(수) - 4일(토), 가톨릭 센터)
2. L.M 연중 친목회 (12월 8일(수) 밤 7시, 전동 성당)
◎ 각 프레스디움 별로 다과, 음료 준비바람. (단일, 협조 단원은 빠짐없는 참석바랍니다.)
3. 4 지구 중 고등 학생회 회장단 회의 (11월 28일 오후 1시, 전동 사제관)
4. 전주교구 중 고등 연합회 제 3차 회장단 회의 (12월 12일(일) 오후 1시, 가톨릭 센터)
※ 참가비 1인당 - 200원
5. 혼인 문제 상담 예고 (12월 7일(화) 예정, 교구청)
■ 謹吊 이 벨로리아노 중군(11월 22일 선종, 불란서에 유학 중인 이 병호 신부님 아버지)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이대권
③3874 보좌 신부 이종원
사도 회장 이상용

1. 방ziger 삼회 월례회: 다음주 오후 2시반.
2. 성심 부녀회: 12월 3일
3. 전주 공고셀 「제 15주년 공개 Cell」: 11월 28일
오후 2시 <중앙성당 강당> ◎ 많은 참석바랍니다.
4. 본당 확인지도: 12월 3일(금)
◎ 전 신자 재교육 실시하오니, 매호 1인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가을 판공 일정: 12월 6일(월)~10일(금) 까지,
가을 시간-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 고백 구역-서노 1, 2구, 진북 1동, 인후동, 중노송동. (지정된 날에 빠짐없이 임하여 주세요) 판공비는 준비하시어 본당 사무실에 접수바람.
□ 학생-토요일 오후 3시~6시까지.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1. 애령회 정기 총회: 오늘 공식 미사 후
◎ 빠짐 없는 참석바랍니다.
2. 사도회 상임 위원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 후
3. 복자회: ① 지난 19일 정기 총회에서 명칭 변경 및 임원 선출 (명칭-부녀부 → 복자회로), 기금 총액 90,000원.
② 임원 <총회에서 선출, 본당 신부 인준 발표>, 회장-총영자(루시아, 태평 2가 3-1573), 부회장-김 화자(글라라, 효자동 2-6016), 총무-최복주(젠바, 태평 2가 3-2770), 재무-박귀순(모니카, 중화산 2-8328), ◎ 많은 기도과 적극적인 협조로 본회 발전에 기합시다.
4. 국군 장병들에게 성탄 위문품, 위문금, 위문 편지를 다같이 보냅니다. <12월 14일까지 사무실에서 접수>

(노송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공아영
사도 회장 박종용

1. 재속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 후
◎ 회원 여러분의 빠짐 없는 참석바랍니다.
2. 재속 형제회 수련식: 오늘 저녁 미사 후
대상-청·장년 20세~40세까지의 남, 녀
3. 교무금 신임을 속히 합시다!
아직까지 신입하지 못한 분들은 속히 하세요.
4. 본당 신부님 영명 축일: 11월 30일(화)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으현택
사도 회장 박장준

1. 청년회 및 어머니회 결성: 오늘 10시 미사 후
◎ 많은 참석바랍니다.
2. 어머니회 총회: 29일(월) 오후 2시.
3. 본당 사무 감사 및 피정: 12월 1일 ※ 사도임원, 제 단체 및 전 교우들의 성의있는 참석바람.
<피정: 오후 7시반, 장소-성당>
4. 신용 협동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 후
5. 공소 판공: 구이 광곡리-12월 3일, 구이 마우리-8일, 구이 석구리-9일, 상관 공소-13일~15일.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 축 본당 신부님 영명 축일: 공식 미사후, 축하식
2. 봉헌금을 속히 신입하세요.
3. 봉헌 봉투 틀린 곳이 있으면 사무장에게 알려 주십시오.
4.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12월 5일)
5. 신용 협동조합 임원회: 12월 6일 12시.
6. 금주 성당 신축 헌금: 김 수근(10만원)
총계 4,987,500원.
7. 사무장 박 요근씨!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유석중

1. ★ 본당 후보 축일! 12월 3일(외부 행사 다음주)
2. 판공 성사 예정 일정: 12월 13일~18일(동별)
3.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1시반.
4. 청소년 목상회 예정: 12월 12일(가톨릭 센터)
5. 금주간 가정 심방: 동, 서 교동.
6. 중·고등 학생은 주일미사 반드시 9시 미사로!
7. 성탄 「사랑의 선물」 보내기 운동(성미, 의류)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제 1 지구	고김부수신태인정	청년회 월례회	7,445원	제 3 지구	주현동 창인동 황	다음주 대의원회	85,910원
		청년회 임원회, 푸리아회				푸리아 200차 월례회 단합대회	34,380원
		예비신자 임원 선출	4,305원			사도회 월례회, 유아세례	9,730원
제 2 지구	대울동중합	사도회 월례회	20,585원	제 4 지구	중노송동 덕진사동동전	공고셀(15주년 공개Cell)	100,676원
		매일 밤 성가연습				재속 형제회 월례회	44,480원
		안나회, 유아세례, 봉성제				★ 축! 본당신부 영명 축일	38,505원
		예비자 합동 환영식, 신자생활 상담	8,490원			애령회 정기총회	29,740원
푸리아 회합, 유아영세, 가정방문	61,650원	청년회 및 어머니회 결성	25,505원				
카리따스 월례회, 어린이 성세식	41,475원	12월 청소년 목상회	114,550원				
성탄절 교리경시대회 안내	15,810원						
레이오 아치에스 행사	11,990원						
제 3 지구	고금여삼	미남공소 강단신축 기금위한 대모임	8,055원	제 5·6 지구	무장진남순임	다음주 교리교사 월례회	12,755원
		다음주 상임위원회 월례회	17,150원			성모회 월례회	8,950원
		연령회 월례회	8,050원			자모회 모임 판공 안내	9,080원
			19,620원			가정 방문	5,270원